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조절전략, 분노조절정도간 관련성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Aggression, Anger Regulation Strategies and Anger Regulation Degree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혜련
교수 김경연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h. D. Candidate : Hae Lyon Lee

Professor : Kyong Yeon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ggression, their anger regulation strategy and anger regulation degree. Using an aggression scale, a total of 428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rades 5 and 6 were examined and partitioned into two groups; -the high aggression group ($n = 107$) and low aggression group ($n = 109$). They rated the degree to which they felt anger in anger events. They selected one strategy used to regulate anger. Then they rated the degree to which they felt anger after using the selected regulation strateg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igh aggression group responded by high degree of anger, low degree of anger regulation and used more affect diffusion strategy. Regardless of children's aggression source, support pursuit strategy was confirmed to be the most effective remedial method while children regulated anger in anger events.

주제어(Key Words) : 분노조절(Anger Regulation), 분노조절전략(Anger Regulation Strategy), 공격성(Aggression)

I. 서론

아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성장 발달한다. 아동이 경험하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정적 정서나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행동을 안내하며 자신의 필요와 의도를 전달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또는 해지하는 역할을 한다(Barrett & Campos, 1989; Frijda, 1986).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가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절과정이 필요하다.

정서조절이란 유발된 내적인 정서를 상황과 맥락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 및 결과(Thompson, 1994)를 의미한다. 정서조절을 잘하는 아동은 유발된 정서를 상황과 맥락에 맞게 변화시켜 적응적인 반응행동을 하지만 정서조절을 잘 못하는 아동은 그러지 못하므로 부적응적인 반응행동을 한다. 양육자의 개입에 의해 정서가 조절되는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가 되면 언어의 발달로 인해 자발적인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된다(Kopp, 1989; Stoker, 2002). 아동기는 정서가 야기하는 결과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 조절 기술을 습득하며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조절전략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 나가는 시기이다(남궁선, 1998; Malatesta & Haviland, 1982). 이때 적절한 정서조절기술이나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 아동은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거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는 등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야기한다(Shipman, Schneider, & Slims, 2005).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대되는 아동기동안 또래와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분노정서를(Salisch, & Vogelgesang, 2005)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조절하는가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 정서발달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적응을 지원하는 자원이 되므로(임희수, 박성연, 2001) 아동기의 분노조절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다.

아동의 정서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Schwartz, *et al.*, 1998; Schwartz & Proctor, 2000; Shields & Cicchetti, 1998) 정서조절실패의 선행요인으로 공격성을 거론한다. 이들 연구는 분노정서를 포함한 슬픔이나 실망과 같은 다른 부정적 정서의 조절을 통합하여 공격적인 아동이 공격적이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조절은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River, 2005) 즉 어떤 아동은 슬픔보다 분노정서를 더 잘 조절하며 어떤 아동은 분노보다 실망정서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공격성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분노정서에 한정하여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조절과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보이는 집단의 아동이 비교집단의 아동보다 타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배려하여 자신의 부정적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Cole, Zahn-Waxler, & Smith, 1994). 공격적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충동적이며 흥분을 더 잘 하며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Almagor & Ehrlick, 1990; Berkowitz, 1990; Green, 1990; Harmon-Jones, 2003).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분노를 적응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며 공격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분노조절능력이 낮게 나타났다(박성연, 강지훈, 2005; 박혜경, 박성연, 2002; 서지영, 2003). 또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Eisenberg, *et al.*, 2001).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연희(2005)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몇몇 연구에서는(Buss & Goldsmith, 1998; Gilliom, Shaw, Beck, Schonberg, & Lukon, 2002; Grolnick, Bridges, & Connell, 1996) 공격행동과 같은 외재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조절전략의 레파토리가 덜 발달되어 있어(한유진, 2005) 자극을 감소시키려는 보다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Chang, Schwartz, Dodge 과 McBride-Chang(2003)의 연구에서도 교사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정된 아동이 분노를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조절전략은 문제해결이나 주의분산과 같은 적응적인 전략, 회피나 감정발산과 같은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서유발상황의 속성이나 유발된 정서의 종류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조절전략과 전략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윤석빈, 1999; 이귀선, 2002). 다시 말해 아동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조절전략이라고 해서 그 전략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석빈(1999)의 연구에 의하면 조절전략의 선택빈도와 효과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혜련과 김경연(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조절전략과 효과적인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듯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과 효과적인 전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전략사용과 분

노전략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나 낮은 아동은 분노조절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전략이 분노조절에 효과적인 전략인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경험적 자료들은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분노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다는 공통된 결과를 제시하면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분노정서의 경험이 보다 빈번하고 더 강하며 부적응적인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분노조절정도가 작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단순히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정도 및 분노조절전략, 분노조절정도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을 뿐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이들 요소들간의 관련성이 어떠한가를 밝히려는 노력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조절전략에 의해 매개됨을 제안하는 연구(박서정, 2005)를 근거로 한다면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정도의 차이는 분노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즉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작은 것은 아동이 사용하는 분노조절전략이 다르고 사용하는 전략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정도, 분노조절정도 및 분노조절전략사용과 전략효과와의 차이를 검증하여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정도, 분노조절정도 및 조절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를 기초로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조절전략과 조절정도간의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할 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이 처한 정서적 상태나 타인의 존재여부와 같은 다양한 상황적 특성 차이에 의해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Cole, 1986; Cole, Zahn-Waxler, & Smith, 1994; Grolnick, Bridges, & Connell, 1996; Mangelsdorf, Shapiro, & Marzolf, 1995; Zeman & Garber, 1996). 이에 분노유발상황에 대한 탐색결과(이혜련, 김경연, 2006)를 기초로 아동이 가장 빈번하게 분노를 느끼는 두 가지 상황, 친구가 놀리는 상황,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을 선정하여 각 상황에서의 분노정도, 분노조절정도 및 분노조절전략을 탐색하였다. 또한 아동에 따라 분노상황에서 느끼는 분노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아동의 분노조절을 평가할 때 초기 분노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분노조절 측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되는 분노조절정도의 측정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분노정도를 고려하여 분노조절정도를 전략사용 후의 분노정도와 초기분노정도의 차이로 산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조절전략, 분노조절정도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사용 및 효과와 분노조절정도와 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초로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효율적인 분노조절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분노정도 및 분노조절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 (1-1).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분노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 (1-2).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분노조절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분노조절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분노조절전략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 추출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아동 428명(5학년 남아; 77명 여아; 67명, 6학년 남아; 152명 여아; 139명)이다.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는 정보처리 능력 및 구성적 사고의 증가로 아동의 정서이해와 조절능력이 보다 복잡하게 통합되는 시기이며(Saarni, 1990) 정서조절에 대한 자기보고가 가능한 시기이다. 또한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특성이 안정(Eron, 1987)되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아동을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2000), 윤리라(1998)의 공격성 척도를 수정하여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한 김귀연(2004)의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내용이 비슷하거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3문항을 제외하고 다른 아이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싸움을 잘한다. 화가 나면 말보다 행동(책상 치기, 밀기 등)을 먼저 한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1점에서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79이다.

(2) 분노조절

아동의 분노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ilk, Steinberg 와 Morris(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ESP 절차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아

동의 분노정도, 분노조절전략, 분노조절정도를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짧은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의 분노정도, 분노조절전략, 분노조절전략사용후의 분노정도를 아동이 직접 자기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이혜련, 김경연, 2006) 학령기 아동들이 가장 빈번하게 분노를 느끼는 2가지 상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가지 상황은 친구가 놀리는 상황과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으로 두 가지 상황 모두 사회적 관계속에서 또래친구에 의해 분노가 유발되는 경우이다. 분노조절전략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이혜련, 김경연, 2006) 문제해결전략, 회피전략, 주의분산전략, 지지추구전략, 감정발산전략의 5가지로 구성하였다. 문제해결적 전략이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나 계획을 실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회피적 전략이란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전략을 의미하며 주의분산적 전략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일이나 생각을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지지추구적 전략은 주위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이나 위로를 구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감정발산적 전략이란 자신의 분노상태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2-1) 분노정도

분노정도는 아동이 친구가 놀리는 상황과 무시하는 상황 각각에 대한 짧은 에피소드를 읽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많이 화가 나겠는지를 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에서 화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6점 리커트로 구성된 분노정도 평가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각 상황별로 분노정도의 점수범위는 1점에서 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화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2) 분노조절전략

아동이 사용하는 분노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이 각 각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문제해결적 전략, 회피적 전략, 주의분산적 전략, 지지추구적 전략, 감정 발산적 전략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문제해결적 전략이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나 계획을 실행하는 전략으로서 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회피적 전략에는 못들은 척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 주의분산적 전략에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이나 생각을 하는 행동, 지지추구적 전략에는 친구에게 하소연하여 위로를 구하는 행동, 감정발산적 전략에는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2-3) 분노조절정도

분노조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친구가 놀리거나 무시하는 각 상황에서 분노조절전략을 사용한 후의 분노정도를 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에서 화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6점 리커트로 구성된 분노정도 평가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상황별로 초기 분노정도에서 조절전략을 사용한 후의 분노정도를 뺀 값으로 분노조절정도를 평가하였다. 분노조절정도의 점수범위는 각 상황별로 -5점에서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조절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노조절 및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의 선정된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1개교의 5학년 한 학급, 6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2007년 12월 8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에서 화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6점 리커트로 구성된 분노정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함께 제시한 분노 표정그림이 질문지의 구성을 복잡하게 하여 아동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질문지에서 표정그림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공격성척도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3문항을 제외하였다.

2) 본 조사

본 연구는 부산시내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44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3개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6개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총 440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12사례를 제외한 42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WIN 1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정도 및 분노조절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heffe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기술통계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정도 및 분노조절정도와 분노조절전략의 사용 및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동의 공격성 점수를 사분위하여 상하 25%에 해당하는 아동을 공격성 상집단과 공격성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공격성 상하 집단의 공격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공격성 상 하 집단의 공격성에 대한 기술통계치 (N = 216)

공격성(N)	평균	표준편차	범위	최소값	최대값
상(107)	19.47	2.75	12	17	29
하(109)	8.74	1.19	3	7	10

2.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정도 및 분노조절정도의 차이

(2-1).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정도의 차이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친구가 놀리는 상황 및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 모두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분노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상황 모두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공격성이 낮은 아동보다 분노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정도의 차이 (N = 216)

상황	공격성(N)	분노정도 -M(SD)	t
친구의 놀림	상(107)	3.73(1.49)	2.10*
	하(109)	3.28(1.68)	
친구의 무시	상(107)	4.45(1.50)	2.64**
	하(109)	3.91(1.51)	

*p < .05. **p < .01.

(2-2).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정도의 차이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친구가 놀리는 상황 및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 모두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아동의 분노조절정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두 상황 모두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공격성이 낮은 아동보다 분노조절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3>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정도의 차이 (N = 216)

상황	공격성(N)	분노조절정도 -M(SD)	t
친구의 놀림	상(107)	.75(1.37)	-4.39***
	하(109)	1.58(1.41)	
친구의 무시	상(107)	.94(1.45)	-3.15**
	하(109)	1.59(1.55)	

p < .01. *p < .001.

3.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 사용의 차이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 사용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조절전략을 교차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조절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친구가 놀리는 상황에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공격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감정발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이 낮은 아동은 공격성이 높은 아동에 비해 문제해결이나 회피 주의분산 지지추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지지추구와 감정발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이 낮은 아동은 높은 아동에 비해 문제해결이나 회피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분노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지지추구전략과 감정발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공격성이 낮은 아동은 높은 아동에 비해 문제해결이나 회피, 주의분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 사용의 차이

(N = 216)

상황	공격성(N)	분노조절 전략(N-%)					X ²
		문제해결	회피	주의분산	지지추구	감정발산	
친구의 놀림	상(107)	18(16.8)	17(15.9)	28(26.2)	5(4.7)	39(36.4)	19.14***
	하(109)	33(30.3)	22(20.2)	33(30.3)	8(7.3)	13(11.9)	
	총(216)	51(23.6)	39(18.1)	61(28.2)	13(6.0)	52(24.1)	
친구의 무시	상(107)	16(15.0)	27(25.2)	21(19.6)	14(13.1)	29(27.1)	15.14**
	하(109)	33(30.3)	34(31.2)	22(20.2)	6(5.5)	14(12.8)	
	총(216)	49(22.7)	61(28.2)	43(19.9)	20(9.3)	43(19.9)	

p < .01. *p < .001.

4.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 효과의 차이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별 분노조절 정도를 분산분석하고 사후 검증으로 Sheffe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친구가 놀리는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분노조절전략에 따른 분노조절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격성이 낮은 아동의 경우 감정발산 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지지추구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나 낮은 아동 모두의 경우 감정발산 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지지추구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한다면 친구가 놀리는 상황이나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 모두에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나 낮은 아동 모두의 경우 감정발산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지지추구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 효과의 차이 (N = 216)

상황	분노조절전략	분노조절정도의 평균(M)	
		공격성 상(107)	공격성 하(109)
친구의 놀림	문제해결	1.06(18)	1.58(33) _b
	회피	.59(17)	1.68(22) _b
	주의분산	.89(28)	1.52(33) _b
	지지추구	1.40(5)	2.88(8) _a
	감정발산	.49(39)	.77(13) _c
	총	.75(107)	1.58(109)
	F	1.00	3.02*
친구의 무시	문제해결	.88(16) _b	1.94(33) _{ab}
	회피	.67(27) _b	1.41(34) _b
	주의분산	1.24(21) _b	1.41(22) _b
	지지추구	2.00(14) _a	3.17(6) _a
	감정발산	.52(29) _c	.79(14) _b
	총	.94(107)	1.59(109)
	F	3.22*	3.36*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정도 및 분노조절정도의 차이와 분노조절전략 사용 및 효과차이를 검증하여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조절전략, 분노조절정도간의 관계 및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과 분노조절정도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공격적인 아동들이 자신의 분노를 보다 효

율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분노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이나 친구가 놀리는 상황 모두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 학생을 대상으로 화가 많이 나는 사건이나 화가 작게 나는 사건 모두에서 공격성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정연희(2005)의 연구나 분노강도가 공격 행동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제안하는 Silk, Steinberg와 Morris(2003)의 연구 등 기존의 연구결과(Eisenberg, et al., 2001; Larson, Raffaelli, Richards, Ham, & Jewell, 1990)와 일치한다.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은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이론이나 Berkowitz(1990)의 인지 신연합 모델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공격적인 아동들은 타인의 의도를 부적절하게 해석하고 단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바르게 추론하지 못하거나 인지적으로 왜곡한다. 아동의 인지적 왜곡이나 결함은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더 많은 적대감으로 표상되기 때문에(정연희, 2005) 공격적이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아동이 분노상황에서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이라 해석된다. 반면 정서상태란 특별한 유형의 느낌, 생리적 반응, 행동반응, 그리고 사고와 기억들이 모두 더 크거나 작은 정도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연합망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구성요소가 활성화 되면 연합의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의 활성화가 촉발되어진다고(Berkowitz, 1989, 1990) 설명하는 인지 신 연합모델에 기초한다면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적이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광범위한 공격 인지 연합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공격성관련 정서인 분노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회 정보처리이론이나 인지 신연합이론은 인지적 왜곡이나 결함과 같은 아동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분노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이론에 근거하여 차후에는 아동의 인지적 특성이 분노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공격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분노조절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은 아동보다 낮은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자신의 분노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과연 분노조절정도가 크다고 해서 분노조절을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분노조절

정도는 크지만 자신의 분노정서를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발산하는 전략 즉 감정발산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이 있다면 과연 이 아동을 분노조절을 잘하는 아동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서론에서 제시한 정서조절의 개념을 기초로 한다면 분노조절을 잘하는 아동이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분노정도를 낮출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하므로 적응적인 분노조절전략을 사용하면서 분노조절정도가 큰 경우에 분노조절을 잘하는 아동이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공격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 작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분노조절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하지만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는 분노조절전략에 대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판단되고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 아동이 사용하는 분노조절 전략에 차이가 나타났다. 친구가 놀리는 상황이나 친구가 무시하는 두 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감정발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이 그들의 또래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Bohnet, Crnic, & Lim, 2003; Hubbard, 2001; Underwood, 1997)와 공격적인 아동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높은 분노정서를 느끼는 경향이 있고 이런 아동은 분노를 감정발산과 같이 겉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Fabes & Eisenberg, 1992)에 의해 지지된다. 공격적인 아동이 감정발산전략을 보다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공격적인 아동들이 분노정서의 원인을 인식하는데 덜 민감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며(한유진, 2005)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발달시키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Crick & Dodge, 1994) 타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하여(한유진, 2004) 자신의 분노정서를 표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해석된다. 또한 정서표출규칙과 관련하여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특정양식의 정서표현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정서표출 규칙을 학습하게 되는데 공격적인 아동은 정서표출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Cole, Zahn-Waxler, & Smith, 1994;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 자신의 분노정서를 발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의 효과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나 낮은 아동 모두의 경우 지지추구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감정발산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친구가 놀

리는 상황이나 무시하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종합해 본다면 아동의 공격성에 상관없이 지지추구전략이 분노조절에 효과적이며 감정발산전략이 분노조절에 비효과적인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친구가 놀리는 상황이나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할 때 지지추구전략이 가장 효과가 있으며 감정발산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학령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증대되면서 또래 관계속에서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다.(박진아, 2000; 박해진, 2002)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은 또래나 부모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예견하는 한 요인이 된다(한미현, 1996; Pierce, Sarason, & Sarason, 1992). 타인이 제공하는 정서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정서적 지지는 애정, 승인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정희, 1987; Ganellen & Blaney, 1984) 타인으로부터 도움이나 위로를 추구하는 지지추구전략이 아동기의 분노조절에 효과적일 것이라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분노상황에서 더 큰 분노를 느끼고 분노조절에 비효과적인 감정발산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분노조절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째,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낮은 것이 분노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한다. 즉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분노조절정도가 낮은 것은 분노조절시 비효과적인 감정발산전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이 분노조절시 비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전략이 가지는 효과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식과 훈련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 따라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분노조절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은 분노조절전략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략이 가지는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를 통해 자신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찾고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과 친구가 놀리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과 비교하여 분노조절에 효과적인 지지추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공격성이 낮은 아동에 비해서 분노조절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가 무시하는 상황에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지지추구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또래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해 분노조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분노조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법으로 또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술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즉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방법에 대한 교육역시 공격적인 아동의 분노조절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분노조절을 잘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즉 서론에서 제시한 정서조절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공격성에 따른 분노조절전략사용 및 효과와 분노조절정도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에 비해 부적응적인 전략 중의 하나인 감정발산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분노조절정도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이 낮은 아동에 비해 분노조절을 잘 못한다는 평가는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공격성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많은 선행연구(박혜경, 박성연, 2002; Cole, Zahn-Waxler, & Smith, 1994; Schwartz & Proctor, 2000; Shields & Cicchetti, 1998;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아동이 사용하는 조절전략이나 조절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은 초기 분노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분노조절의 정도를 개괄적으로밖에 평가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분노조절전략과 분노조절정도를 통합하여 아동의 분노조절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초기분노정도를 고려하여 분노조절정도를 보다 타당성 있게 평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또래관계 속에서의 특정상황에 대한 1회성 질문지를 사용하여 아동의 분노조절을 측정하였다. 때문에 특정상황에서의 분노조절 평가의 정확성에 다소의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기보고 방법으로 분노정도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기 분노정도를 고려하여 분노조절정도를 보다 타당하게 평가하고자 노력하였고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조절전략 및 분노조절정도와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공격적인 아동의 분노조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출발점으로 차후에는 아동의 분노조절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뿐 아니라 위축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격적인 아동과 위축적인 아동 그리고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공격성과 위축성이 동시에 높은 복합적 유형을 나타내는 아동의 분노조절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귀연(2004). 아동의 또래 부적응에 대한 부모요인 및 또래요인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신 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궁선(1998). 부정적 정서의 조절전략 발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2000).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종류와 개인변인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박서정(2005).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전략 및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강지훈(2005). 남 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3.
- 박진아(2000).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해진(2002).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각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서지영(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리라(1998).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석빈(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귀선(2002).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련, 김정연(2006). 아동의 정서반응유형, 정서조절전략 및 효과 탐색; 정서조절 전략 및 효과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7), 99-111.
- 임희수, 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정연희(2005). 공격성향자들의 정서적 특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능력과 행동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유진(2005).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6(4), 85-100.
- Almagor, M., & Ehrlich, S.(1990). Personality correlates and cyclicity i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Psychological Reports*, 66, 1159-1169.
- Barret, K., & Campos, J.(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II: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nd, pp. 555-578). New York: Wiley.
- Berkowitz, L.(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73.
- Berkowitz, L.(1990). On the formul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ssociat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 Bohnert, A. M., Crnic, K. A., & Lim, k. G.(2003). Emotional competence and aggressive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1), 79-97.
- Buss, K. A., & Goldsmith, H. H.(1998). Fear and anger regulation in infancy: Effects on the temporal dynamics of affective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69, 359-374.
- Chang, L., Schwartz, D., Dodge, K., & McBride-Chang, C.(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598-606.
- Cole, P. M.(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835-846.
- Crick, N.,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odge, K. A.(1986). A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 18. pp. 77-125).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et al.(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36-157.
- Eron, L. D.(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rijda, N.(1986). *The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nellen, R. J., & Blaney, P. H.(1984). Hardness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effects life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56-163.
- Gilliom, M., Shaw, D. S., Beck, J. E., Schonberg, M. A., & Lukon, J. L.(2002). Anger regulation in disadvantaged preschool boys: Strategies, ant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222-235.
- Green, R. G.(1990). *Human aggression*. Pacific Grove. CA: Books/Cole.
- Grolnick, W. S., Bridges, I. J., & Connell, J. P.(1996). Emotion regulation in two-year-olds: Strategies and emotional expression in four context. *Child Development*, 67, 928-941.
- Harmon-Jones, E.(2003). Anger and the behavioral

- approach syst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5), 995-1005.
- Hubbard, J. A.(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 1426-1438.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Larson, R., Raffaelli, M., Richards, M. H., Ham, M., & Jewell, L.(1990). Ecology of depression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 profile of daily states and activit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92-102.
- Malatesta, C. Z., & Haviland, J. M.(1982). Learning display rule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Mangelsdorf, S. C., Shapiro, J. R., & Marzolf, D.(1995). Developmental and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66, 1817-1828.
-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I. G.(1992). General and specific support expectation and stress as predictors of perceived supportivenes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97-307.
- River, S. E.(2005). Discrete Emotion in Emotion Regulation: The case of anger and sad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Yale, New Haven, CT.
- Saarni, C.(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hompson(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t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pp. 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lisch, M. V., & Vogelgesang, J.(2005). Anger regulation among friends: Assessment and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22(6), 837-855.
- Schwartz, D., Dodge, K. A., Coie, J. D., Hubbard, J. A., Cillessen, A. H. N., Kemerise, E. A., et al.(1998).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431-440.
- Schwartz, D., & Proctor, L. J.(2000).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Paper presented at meetings of ISSBD XIV, Beijing, China.
- Shield, A., &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Shipman, K., Schneider, R., & Slims, C.(2005). Emotion socialization in maltreating and nonmaltreating mother-child dyads: Implications for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3), 590-596.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toker, S, C.(2002). Emotion regulation in high-risk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 Thompson, R. A.(1994).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4, 269-307.
- Underwood, M. K.(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3, 610-634.
- Underwood, M. K., Coie, J., & Herbsman, A.(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 in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66-380.
- Zeman, J., & Garber, J.(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접 수 일 : 2008년 4월 17일

심사시작일 : 2008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9일